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된 항목들의 핵심 요점들

(토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성경: 요 17:21-22, 엡 4:1-6, 행 1:14, 고전 12:15-22, 고후 10:13-15

- I.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담화(談話)의 연속으로서, 하나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신에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에 대해 기도하셨다.
 - A.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요 17:11, 21), 이 하나는 그 영을 함축하거나 포함한다.
 - B. 주님은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데에 복수 대명사 '우리'(요 17:11, 21)를 사용하셨다.
 - C. 삼일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이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에 대한 본이다.
 - D.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확장된 하나이다 — 요 17:21.
 - E. 우리의 하나의 기반은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하나이다.
 1. 이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으며 영원한 생명에 의한 것이다 — 요 17:2, 6, 11.
 2. 이 하나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으며 거룩한 말씀에 의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한 것이다 — 요 17:14-21.
 3. 이 하나는 신성한 영광 안에 있으며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이다 — 요 17:22-24.
 - F. 주님은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 사이의 하나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 사이의 하나가 신성한 삼일성의 진정한 하나와 합해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 요 17:21-23.
- II.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함을 보아야 한다. 우주 안에는 한 몸이 있다 — 엡 4:1-6, 2:19, 딤후전 3:15, 엡 5:23-25, 2:15, 골 3:11, 고전 12:12.
- III.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 곧 한마음 한뜻이다. 한마음 한뜻은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열어 주는 만능열쇠이다 — 행 1:14, 2:46, 4:24, 5:12, 15:25, 롬 15:6.
- IV.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다섯 가지 문구는 그 영의 하나(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키는 실지적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 길은 바로 한마음 한뜻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문구는 바로 '겸허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고', '화평의 때는 띠로'이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은 교회생활의 실행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에 의해 우리는 자신이 실지적으로 교회생활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 A.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세우지 말아야 하고, 겸허하게 더 약한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1.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 이외의 다른 무언가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겸허하

- 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 겹쳐하지 않은 것이다.
2. 어떤 것이 아무리 선하거나 하늘에 속하거나 영적일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자신 이외의 것이라면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3. 좀 더 연약한 이들, 좀 더 어린 이들, 그리고 뒤로 물러난 이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겹쳐가 아닌 교만에서 나온 높은 기준을 세울 것이다.
- B.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태도에서 온유해야 한다 — 민 12:3, 마 5:5.
1. ‘온유’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온화함과 부드러움과 이기적이지 않음을 함축한다.
 2. 온유는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의 문제이다.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는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결코 자신을 위해 논쟁하지 않고, 결코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않는다 — 대하 1:10, 골 2:2-3, 빌 4:5.
 3. 온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든지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만 한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가혹하거나 냉정하거나 잔혹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4. 합당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 온유함과 온화함과 부드러움을 산출한다.
 5. 여러 지방의 교회들에서 많은 문제들이 주로 잘못되고 부주의하고 차갑고 가혹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언제나 부주의한 태도들을 사용한다 — 엡 6:16.
 6.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생활이 거칠지 않고 매우 섬세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예표에 따르면, 교회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단체적인 소제물, 곧 한 떡이다 — 레 2:1-5, 고전 10:17.
- C.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것이다. 오래 참음은 주로 우리가 하는 말과 관계있다.
1. 어떤 형제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생활의 유익을 위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입 밖에 내고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오래 참음이나 인내가 요구되지 않는다.
 2. 인도하는 형제들이 다투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즉시 다른 형제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공과를 배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3.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의 말을 절제하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교회생활에서 ‘참음’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4. 어떤 메시지를 들은 즉시 우리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공과를 배웠다면,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교회생활의 실행의 유익을 위해 사역에 관해 부정적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입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다.
 5. 우리의 말과 대화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많이 교회를 손상시킨다. 어떤 이야기가 일단 제삼자에게 전해지면 그 이야기는 바뀌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크게 과장될 수 있다. 소문은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6. 오래 참음의 공과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제한하고 우리의 혀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고통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지만 교회생활이 손상되지 않도록, 성령의 기쁨 바름과 인도가 없다면 한마디도 말해서는 안 된다.
- D. 사랑 안에서 서로를 깊어지기 위해,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의심과 두려움에 맞서 싸워야 한다.

1. 의심과 두려움을 갖는 대신에 우리는 오직 사랑만을 가져야 한다. 사랑이 교회생활에서 우세해야 한다. 사랑은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가 되거나 무언가를 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길이다 — 고전 12:31하.
 2. 어떤 형제를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의심 후에는 두려움이 뒤따른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라고 말한다.
 3.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 교회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 — 비교 전 7:21-22.
- E. 우리는 화평의 때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켜야 한다.
1. 우리가 하나님과만 화평을 갖고 모든 형제들과는 화평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생활을 잃어버린 것이다. 교회생활은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갖는 화평뿐 아니라, 또한 수평적으로 모든 형제들과 갖는 화평에 의해서 점검된다.
 2.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지나치게 깊은 관계를 맺거나 지나치게 무관심한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 화평의 때는 띠는 교회 안에서 균형 있게 관계를 맺는 것이다.
- V.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든다면(오직 그분만이 머리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로 완전히 들어간다면), 우리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 딤후 1:3-4, 골 2:19.
- A. 누군가가 머리이신 분을 붙들고 있지 않을 때 차이점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지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지체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 B. 그리스도는 몸 안에서 유일한 권위자이다. 모든 지체들의 위치는 머리이신 분을 붙잡고, 그분을 모든 것에서 유일한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다.
- VI. 우리는 항상 몸을 고려하고, 몸을 관심하며, 몸을 존중하고, 몸을 위해 최상의 것을 해야 한다 — 고전 12:12-27.
- VII. “니 형제님이 몸에 대해 가르칠 때,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교회생활 안에서 소요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 44쪽)
- VIII. 몸 안에는 독립이나 개인주의가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체들이고 지체들은 몸에서 떨어져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 고전 12:27, 롬 12:5, 엡 5:30.
- A. 몸에 대한 계시가 있는 곳마다 몸을 의식하는 것이 있고, 몸을 의식하는 것이 있는 곳마다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이 배제된다.
 - B. 내가 모르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가 알 것이고,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가 볼 것이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가 할 것이다 — 고전 12:17-22.
 - C. 우리가 우리의 동료 지체들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그리스도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조만간 메말라 버릴 것이다 — 고전 12:12.
- IX.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다른 지체가 우리를 제한하도록 허락해야 하며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 A.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의 위치를 정해 주셨다 — 고전 12:18.

1. 머리는 우리를 몸 안의 특별한 위치에 두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기능을 지정해 주신다 — 롬 12:4, 고전 12:15-17.
 2. 우리 지체들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고유의 위치를 가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3. 이러한 배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모든 지체는 각각 명확한 위치, 명확한 배치, 특별한 몫이 있으며,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긴다 — 고전 12:18-22.
 4. 각 지체는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고유한 역량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각 지체의 위치나 직임이나 사역을 구성한다 — 롬 12:4-8.
- B. 몸이 자라고 발전하기 위한 기본 요구 조건은 우리가 자신의 분량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 서지 않는 것이다 — 엡 4:7, 16.
1. 우리는 자신의 분량을 넘어설 때 몸의 질서를 깨뜨리게 된다.
 2. 냉철하지 못한 생각으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은 몸의 생활의 합당한 질서를 없애 버리는 것이다 — 롬 12:3.
- C.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분량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재어 주시고 측량해 주신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 고후 10:13-15, 엡 4:16, 딤후 4:5.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교회생활의 실행을 위한 다섯 가지 실질적인 항목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를 지키는 실질적인 길을 제시한다. 즉,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짊어짐과 화평의 매는 띠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전에서 이 표현들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실재는 모를 수 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는 주로 우리의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나의 과거의 체험과 배움에 따르면, 이 다섯 가지 항목은 교회생활의 실행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이다. 우리는 이 시험에 의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생활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높은 표준을 내세우지 않고 겸허함으로 더 약한 이들을 사랑함

먼저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 앞에 높은 표준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표준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허함을 참되게 실행하는 것이다. 주님의 주권에 의해 나는 조직적이고 형식적이며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안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여러 다른 학파와 분파와 교파들을 접촉할 기회가 있었다. 비록 어떤 이들은 선했지만, 높은 표준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그들의 표준으로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거룩함 또는 내적 생명 또는 영성이 그들의 표준이라고 말한다. 나는 자신들의 표준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까지 말하는 소수의 무리도 만난 적이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충만도 우리가 내세우는 높은 표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외의 다른 것을 우리의 표준으로 취하는 한 우리에게 겸허가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높은 표준을 내세운다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겸허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도, 방언이나 치유의 은사도, 선교의 일도 우리의 표준이 아니다. 선교의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을 말하고 치유를 행하며 십자가를 전파하고 부활 생명을 가지며 거룩함을 실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이것들

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어떤 것이 아무리 좋고, 하늘에 속하거나 영적이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예컨대 ‘거룩한’ 교회가 있는 이유이다. 어떤 한 무리가 어떤 표준에 근거해 자신들을 교파로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은 여전히 분열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준이시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분열적인 방식에 의해서라면 주장조차 해서도 안 된다.

영적인 표준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손상을 초래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영적일수록 그들은 서로를 영적으로 더 죽인다. 왜냐하면 일단 어떤 이가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이르면 다른 이들에게 그 영성을 표준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의 영성은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이 된다. 표준을 내세우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 자신들의 표준에 못 미친다고 종종 말한다. 이것이 죽이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른 모든 이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많은 경우 영적인 사람들을 합당하게 대하는 것은 쉽지만, 약한 이들과 어린 이들과 방황하는 이들을 합당하게 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교회생활을 손상시킨다. 교회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우리는 모든 이를 그들의 영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가 영적이든 그렇지 않든, 주님을 많이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를 대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의 긍휼에 의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보다 더 잘 대해야 한다. 만약 우리 앞에 뒤로 물러간 이와 영적인 인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를 시험한다. 우리는 아마도 영적인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모두 뒤로 물러간 이를 더 사랑해야 한다. 앞선 형제는 이미 영적이므로 우리의 사랑과 돌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뒤로 물러간 가련한 형제는 확실히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만약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가는 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의 사랑에 의해 회복될 것이다. 많은 경우, 어떤 이들을 더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냉담한 태도이다. 그가 교회생활 안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바로 냉담한 얼굴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더 약한 이들과 더 어린 이들과 뒤로 물러선 이들은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다. 나는 과거의 체험을 통해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들을 지나치게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오히려 더 약한 이들과 육체적이고 혼적인 이들과 문제들이 있는 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문제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허가 아닌 교만에서 비롯된 높은 표준을 내세울 것이다.

만약 우리가 표준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참된 겸허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겸허한 생각을 하고 높은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약한 이들과 더 어린 이들과 뒤로 물러간 이들을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복음서에 따르면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선한 사람들보다는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 주셨다. 이것이 참된 겸허와 낮아짐이다. 참된 겸허를 지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표준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생활을 하는 실질적인 길이다. 교회생활은 매우 영적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또한 뒤로 물러간 이들이 많이 있다. 교회는 가정이지 대학이 아니다. 대학에서는 거의 모두가 열여덟 살부터 스물세 살 정도까지의 비슷한 연배에 있다. 그러나 가정에는 더 어린 이들과 더 약한 이들과 심지어 갓난아기들도 있다. 가정생활은 교회의 그림이다. 이십 년 전에 나는 우리의 표준으로 영성을 오늘날보다 더 강조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여러분 앞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높은 표준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대신 우리는 모든 이, 심지어 가장 약한 이들에게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겸허를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온유한 태도를 취함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절은 온유를 말한다. 높은 표준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겸허와 관련된 우리의 동기를 시험한다.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표준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겸허함으로 모든 이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온유는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의 태도는 온유해야 한다. ‘온유’에 대한 헬라어는 부드러움과 관대함과 이기적이지 않음을 함축한다. 교회에서 우리의 태도는 부드럽고 온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모두 부서질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이기적이라면 참되게 온유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온유함은 거짓일 것이다. 오직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참된 온유함이 있다. 온유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자신을 희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온유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의 성경을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 우리의 태도가 온유하기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생하는 영이 있다면, 우리는 그 형제가 성경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경을 사용하세요.”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온유하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단지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으로만 강해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나는 내 체험에 따라 말하고 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한 형제가 부주의하여 다른 형제를 발로 찰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두 자매가 작은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명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자, 다른 한 자매는 자기 앉을 자리를 되찾고자 기를 쓸 수 있다. 이것들은 사소한 시험들이지만 거기에 담긴 원칙은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고 이기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부드럽고 온유할 것이다. 오직 이기적인 사람들만이 까다롭고 거칠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어떠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만약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태도는 까다롭고 거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며 관대할 것이다. 거짓됨이 없이 참되게 그러할 것이다. 교회생활에서 우리에게 거칠거나 까다롭거나 무자비한 태도가 아닌 부드럽고 온유하며 관대한 태도가 필요하다. 한번은 어떤 음식점에서 웨이터가 내 등에 수프 한 접시를 쏟은 적이 있었다. 내가 그 옷을 애지중지했었다면, 거칠게 “이게 뭘입니까?”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 나는 온유할 수 있었다. 나는 같이 있던 이들에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마음 상할 일이 아닙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는 온유와 부드러움과 관대함을 낳는다. 합당한 태도를 가지려면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합당한 태도를 지니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지하고 우리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동기를 아신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의 동기를 알 수 없다. 우리는 오직 그의 얼굴과 태도만을 볼 수 있다. 좋은 마음과 동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제에게 거칠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합당한 교회생활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모두 반드시 태도를 바로잡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 일에서 우리는 참된 부서짐이 필요하다.

여러 지방의 교회에서 문제는 대부분 잘못되고 부주의하며 냉담하고 거친 태도에서 비롯된다. 합당한 태도를 지니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간교한 자 사탄은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인사하는 방식에서 조금만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그는 다른 형제의 생각에 불화살을 쏠 것이다(엡 6:16). 그래서 이 형제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울 때, 그 형제의 태도에 대해 마음이 편하지 못함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음 날 이 형제는 자신을 마음 상하게 했던 그 형제에 대해 거친 태도를 취할 것이고, 이제 그 형제도 이에 더 반응할 것이다. 결국 한 번의 부주의한 인사 태도가 연속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두 형제 사이에 균열이 있을 것이며, 여러 오해가 뒤따라 발생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상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이런 종류의 반응이 오고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된 경우들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은 다름 아닌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교회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교회생활이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섬세한 것임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예표에 따르면 교회는 고운 밀가루로 만든 떡이다(레 2:1-5, 고전 10:17). 조잡하거나 거친 것은 교회생활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나 종교적인 방식으로 괜찮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섬세한 방식으로 행함으로써 형제자매들에 대해 섬세한 표현을 지녀야 한다. 우리의 태도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만약 합당한 태도를 위해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많은 오해에서 구원받고 구출되고 지켜질 것이다. 거의 모든 오해는 부주의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사탄은 항상 부주의한 태도를 이용하여 교회를 공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단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간교한 자가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는 것이다. 간교한 자는 여기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태도에는 원수가 이용하고 우리를 공격할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부주의함이 없어야 한다.

온유함은 부드럽고 관대하며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않는 이타적인 태도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나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단지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으로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교회생활의 실행과 관련해서 내가 과거에 체험한 것을 따라 말하고 있다. 비록 주님께서 나의 동기가 순수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실 수 있지만, 사역 초기에 태도가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나의 동기는 선했지만, 사람들은 나의 동기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은 오직 나의 태도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며,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고 관대하고 합당하며 자기변명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태도를 지닐 것이고,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이 잘못된 태도를 이용할 것이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말에 제한을 받음으로 오래 참음을 지님

에베소서 4장 2절은 또한 오래 참음에 대해 말한다. 나의 체험에 따르면, 오래 참음은 우리의 말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과 대화에 주의해야 한다. 특별한 원함이 있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도 그것을 삼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만약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생활을 위해 우리는 그것에 관해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2절에서 말한 오래 참음을 훈련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공과를 배우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이다. 어떤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한다면, 우리는 즉각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에 대해 말할 것이고, 또 다른 이에겐 전화를 걸어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함으로써 후련함을 느낄 것이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을 언급하고 표현하며 말해 버린다면, 거기에는 어떤 오래 참음이나 인내가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인도하는 형제들이 다루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즉각 다른 형제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 말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매우 후련함을 느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누린다. 그러나 만약 공과를 배웠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만약 사랑하는 아내가 들어와서 왜 울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다만 “당신이 염려할 일이 아니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이 염려할 일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은 그녀가 염려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방식으로 말을 삼가는 것을 배운다면, 교회생활에서 ‘참음’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말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종종 앞서 말한 오래 참음의 고통을 겪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무엇을 보았든지 간에 그것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처럼 합당하지 못한 습관에는 견뎌야 할 짐이나 굴레가 없다. 한 메시지가 주어지자마자 즉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비판하면서 “형편없는 메시지였어. 그의 말은 유창하지 못했고 악센트도 엉망이었어. 구변에도 그다지 인상적인 것이 없고. 나는 그의 중점에도 동의하지 않아.”라고 말

하기 시작할 수 있다. 어떤 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는 더 후련함을 느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공과를 배웠다면, 사역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교회생활의 실행을 위해 사역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입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집에 돌아올 때 아이들이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답변에 매우 주의할 것이다. 이렇게 실행한다면 우리는 합당한 방식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우리의 말과 대화보다 교회를 더 손상시키는 것은 없다. 어떤 이들은 직접 말로 전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이들은 편지를 써서 알리기를 좋아한다. 전보를 부치기 위해 우체국을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곳의 사역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 해외의 여러 교회가 이미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보수를 받지 않고도 소식을 전하는 많은 ‘통신원들’과 ‘집배원들’이 있다. 만약 주일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다음 날 아침 ‘교회 집배원’ 한 명이 와서 그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해 줄 것이다. 이것은 비난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삼십 년 이상 관찰해 온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전화 통화와 편지와 개인적인 접촉에 의해 전달된다. 이것은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손상시킨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소문을 만들어 내는 이 일에 자신이 얼마만큼 많이 연루되어 왔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일단 어떤 이야기가 한 다리를 거치면 내용이 변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매우 과장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소문은 항상 그렇다. 오래 참음의 공과를 배우려면, 우리는 우리의 입을 제한하고 우리의 혀를 멈추는 고통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성령의 기름 바름과 인도가 없다면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원수가 그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혀를 사용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 심지어 어떤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는 한마디도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오래 참음의 공과를 배웠다면, 우리는 합당하지 않게 말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2절이 말하는 오래 참음의 합당한 의미이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의 삼 년 동안 교회생활을 실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너무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손상이 초래되었는지를 볼 것이다. 우리는 말할 때 부주의하여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고통받게 했으며 우리 자신도 고통을 겪었다. 결국 나는 다른 종류의 고통을 받는 대신 오래 참음의 고통을 받기로 결심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만약 오래 참음에 의한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함에 의해 부정적인 방식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오래 참음을 택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종류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교회생활은 손상받지 않고 보존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체험을 통해 이것을 배웠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짊어짐

2절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고”라는 권면으로 마친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려면, 우리는 교회생활에서 두려움과 의심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것 대신에 오직 사랑만이 있어야 한다. 어떤 형제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의심에 이어 두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만약 두 형제가 서로를 의심한다면, 그들은 서로에게 간첩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다. 실질적인 교회생활을 실현하려면, 우리는 모두 일어서서 의심에 맞서 싸워야 한다. 만약 전혀 의심이 없다면 서로를 두려워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에 입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정치적인 모임 안에 있지 않다. 거기서는 심지어 지도자들도 서로를 의심

한다. 우리는 결코 서로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로를 엿탐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만약 어떤 형제들이 우리에게 대해 무언가를 말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라. 우리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내려 해서 안 된다. 우리는 어떤 형제에게 가서 “그들이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형제가 아닌 정치가로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의 주권적인 손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 제가 알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또 그것이 당신의 영광과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당신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것을 저에게 알려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어떤 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형제들에 대하여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두려움도 없다. 그러므로 엿탐할 필요가 없다.

때로 어떤 형제들이 나에게 와서 무언가를 말할 때, 나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형제님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유혹이 항상 있다. 교회생활을 실현하려면 이런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의심도 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형제가 선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다. 만약 이렇게 실행한다면 원수에게 문이 닫힐 것이다.

반면 어떤 이가 의심을 품는다면, 그것은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그런 반발로 말미암아 결국 연속적인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아닌 오직 의심과 두려움만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경찰관’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경찰국가가 아닌 ‘경찰교회’가 될 것이다. 많은 경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많이 겪어 왔다. 어떤 형제는 “나는 세 명의 형제가 자정까지 집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상 집회에서 왜 그 형제가 안 보였습니까?”라고 질문하며 뭔가를 캐내려 할지 모른다. 이런 종류의 말함은 간첩이 하는 음지의 일이다. 이것은 교회를 손상시킨다. 이것은 건축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것은 죽이고 찢어지게 한다. 만약 참으로 교회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하는 것에 주의하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

화평의 때는 따로 그 영의 하나를 지킴

에베소서 4장 3절은 “화평의 때는 따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만 화평이 있고 모든 형제와는 화평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생활을 잃은 것이다. 교회생활은 우리가 수직적으로 단지 하나님과만 갖는 화평이 아닌, 수평적으로 모든 형제와 갖는 화평에 의해 검증된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화평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지나치게 깊은 관계를 맺거나 지나치게 무관심한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 화평의 때는 떠는 교회 안에서 균형 있게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 실행, 건축, 260-273쪽)*